

# 한국불교 세계화 교두보로 '우뚝'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준공법회가 9월24일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무량사 회주 혜성 스님이 준공된 문화원 설립전에서 축사하는 장면.

##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준공 기념법회 현장

혜성·혜총·진허 스님, 하와이 부주지사 등 300여명 참석  
한인 양로원 건립 위한 김창배 선화 전시 등 행사 다채  
무량사·현대불교신문 공동주최 '간화선 법회' 입제식도



무량사 문화원 준공식에 참석한 하와이 불교계와 하와이 주정부, 호놀룰루 영사관 등 교포사회 지도자들.



진허 스님의 간화선 법회 후 참가자들이 실참을 하고 있는 모습.

참가한 가운데 기념만찬이 열렸다. 좌석 1석당 100달러(11만원)의 기부금을 받는 400석 규모의 만찬을 예상했지만 하루 전날 100석이 초과된데 이어 당일날 47명이 더 참가했다. 3만여명밖에 거주하지 않는 하와이 주에서 모처럼 547명의 한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다른 커뮤니티(사회)에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날 만찬에서 무량사는 앞으로 30년 봉사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노 보살들이 병든 몸을 부처님께 의탁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하와이 한인요양원 건립과 한국불교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을 미국전역에 전파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

이런 한인 노인요양원 건립업원에 따라 부대행사로 이날 코랄볼룸 앞 전시공간에서 마련된 담원 김창배 화백의 선화 초대전은 첫날 16점, 다음날 3점이 판매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김창배 화백은 본사를 통해 무량사 한인 노인요양원 설립기금 전시회에 선화 50점을 기증했다.

2부 순서로는 무량문화재 제5호 이은주 선생과 제자 김금숙, 방인숙씨 등의 경기민요공인과 무량사 합창단의 합창, 하와이 춤사랑단의 공연 등이 펼쳐져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 가 됐다.

다음날인 9월 25일 오후 3시 무량사 설립전에서는 스님 30여명과 간화선에 관심 있는 불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와 무량사 주최로 선원장 초청 하와이 간화선법회가 열렸다.

**간** 화선 법회에 앞서 열린 입제식에서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은 "간화선법회는 무량사 창건 30년 동안 가장 뜻깊은 행사"라며 "모두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간화선 수행을 하와이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어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은 "선원장 초청 간화선 법회는 해외에서 처음 열리는 한국불교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며 "법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희생한 것처럼 굳은 신념을 갖고 간화선을 전하자"고 말했다.

이 어 법주주 참가한 진허 스님(前 통화사 금당선원장)은 "간화선은 본래부처로 이루어진 나를 깨닫는 참선법이다. 이 참선법이야말로 나고 죽는 것과 행복 불행 등 자신의 인생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법문했다.

법문에 이어 진허 스님의 지도로 30분동안 참선 실수가 진행됐다.

**진** 허 스님의 참선 지도 후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과 불자들이 1시간여 동안 참선 수행에 들어갔다. 이날 처음으로 절에 와 간화선을 체험했다는 재미교포 버나드(Bernard, 미국 육군병원의사)씨는 "모국의 선수행을 경험하고 싶어 찾아왔다"며 "좋은 경험이고, 정말 잘됐다. 앞으로 4회의 법회를 모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년전 한인 이민의 첫 기착지인 하와이에서 한국 수행법 간화선을 소개하는 이번 선원장 초청 간화선법회는 10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열린다.

하와이/글·사진=김원우 기자

다음호부터 매주 한차례씩 '간화선 세계화' 위한 선원장 초청 하와이 무량사 대법회' 법문을 게재합니다.



■ 무량사 문화원은?  
공사 중단 재시공 거쳐 20년만에 신도들 만두 팔아 불사금 내기도  
싯달타대학·대학원 개교 임박

무량사 문화원 건립불사는 1986년 국회 정각회와 한국 불자 기업인들의 회주로 한인 이민의 첫 기착지인 하와이에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지붕 건축 공정이 진행되는 도중, 인근 주민들이 건물이 너무 높고 이익을 제기하여 호놀룰루시가 공사중지를 명령하면서 10여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다 96년 부임한 주지 도현 스님의 노력으로 98년 8월 하와이 주법원이 2m를 낮춰 재시공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마무리 공사와 내부공사를 진행, 올해 9월 준공됐다.

20년 동안 공사비 260억원에 재관비용도 100억원이나 소요됐다. 문화원을 짓는데 무려 360억원이 들어간 것이다.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지 스님과 신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지난 20년 동안 오직 한국불교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전초기지로의 원력을 세우고 문화원 불사를 계속해왔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노 보살들은 하도못해 빈 병, 강풍을 모으고, 김치, 간장, 된장, 만두를 팔아서 문화원 불사에 내놓았다. 지금도 화요일과 목요일 매주 2회 전 신도들이 모여 빛는 만두는 하와이에서 인기가 좋다.

문화원에는 이미 무량사에 개인한 해외 유일의 선방인 태평선원과 명원문화재단 하와이 다실 및 교육시설인 명원다도문화원을 비롯 설립전, 국제선원, 싯달타대학교, 갤러리, 방사, 식당이 들어선다.

특히 4년제 정규 대학과 2년제 대학원으로 개교를 앞두고 있는 싯달타대학교는 한국불교, 차, 법대 등을 본격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김창배 화백 선화전시회 개막식.

## 불경, 금책, 금병풍

신물 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천수경 12매·반야심경 8매

복상불호소영  
장의량신장가  
의식사용용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 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기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장전 차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복판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건강약물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물이 70~80°C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썩음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 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설기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약화복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외지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분에게 적극 권장 ◆아랫배가 냉하는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기

원적외선 “침” 썩음의 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음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운 열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 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 통증을 다양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일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정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 정예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